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, 농업용수 안정공급 달성

관내 저수지 187곳 평년대비 117.6% 안정권 진입

정태희 기자 chance0917@hanmail.net

기사입력 2025.10.21 17:12:25 최종수정 2025.10.21 17:12:25



- 2024년12월 준공한 청주시 소재 대덕저수지 전경.

【충북일보】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로 농업용수 안정공급이라는 성과를 거뒀다.

봄철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일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대비 65%대까지 떨어졌지만, 선제적 대응을 통해 10월 기준 평균 117.6%까지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.

올해 충북지역은 극심한 기후위기를 겪었다. 강수량이 평년의 88% 수준에 그쳤고, 특히 옥천·영동·보은 등 남부권은 평년(1천127.8mm)의 83.5%인 942.8mm에 불과해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.

충북본부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. 가뭄 취약 지역에 임시양수장을 추가 설치하고, 배수로 준설 및 수초 제거 작업을 집중 시행해 물길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.

그 결과 10월 기준 관내 187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7.6%로 안정권에 진입했다. 지역별로는 진천 129.2%, 보은 123.6%, 충주·제천·단양 121.5%, 괴산·증평 120.3%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치를 웃돌았다.

충북본부는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물관리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. 노후 저수지 보수·보강 사업과 양·배수장 자동화 시스템 확대 등 첨단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다.

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은 "2025년은 극한 기후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물관리의 모범을 세운 한 해"라며 "이번 경험을 토대로 2026년에는 더욱 철저한 사전점검과 수자원 확보 대책을 추진해 농업인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충북본부는 내년 저수지 안전점검 강화, 가뭄 취약지 상시 모니터링,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.

/ 정태희 기자 chance0917@hanmail.net

Copyright @ 충북일보 & inews365.com
